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4.12~2017.4.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당신은무엇을먹고사십니까	선재 스님	불광출판사	6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2	성철평전	김택근	모과나무	7	붓다컬러링(손끝으로 만드는 마음속평화)	매튜스미스	㈜쏘계종출판사
3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8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4	수구즉득다라니	석법성	운주사	9	대방광불화엄경강설52(여래출현품3)	무비	담앤북스
5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10	내안에삶의나침반이있다	법상/용정운	아름다운인연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내 곁의 사람들을 지금 사랑하라"

좋은 봄날에 울지마라

현진 스님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1만 4천원



불교계 대표 문사인 청주 마야사 주지 현진 스님〈오른쪽 사진〉의 에세이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졌다. 이번 책에는 직접 꽃나무와 농사를 돌보고 계절의 오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청정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승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청주 마야사서 텃밭 농사를 짓고 사찰 정원을 가꾸며 사는 스님에게 꽃과 나무를 돌보는 일은 일상이자 수행이다. 마야사의 꽃밭을 보기 위해 사찰을 찾는 이들이 있을 정도다. 스님은 생명을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한다.



나와 마음 맞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 삶이려니 인정하는 태도 필요

모두 사라질 인생, 남 용서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 편안히 사는 길

생명으로 풍성한 스님의 정원

"모름지기 심는 것이 많아야 좋은 인생"이라는 것이 현진 스님의 생각이다. 절을 지을 때도 절보다 나무를 먼저 심었다. 건물은 빨리 지을 수 있지만 나무는 시간의 깊이를 지녀야 해서다. 봄이면 백일홍과 황금아카시나무 등을 심고, 텃밭에는 고구마와 땅콩 등을 기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농약을 치거나 함부로 가지를 잘라 내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베어 낼 때도 톱질하기 하루 전에 막걸리를 부어 놓고 나무를 쓰다듬으며 미안함을 전한다. 생명을 아끼는 스님의 태도와 생명이 새움을 틔우고 자라나는 과정을 엿보는 것 또한 이 책의 재미다. 인생사 역시 자연과 다르지 않다. 비 오고 눈 오는 일처럼, 사람의 인생에도 고단한 날이 있다. 그럴 때엔 꽃에 기대 위로받기도 하고 눈물이 날 때면 울면서 그 시절을 견뎌내자는 것이다.

인간관계서 너그러워지는 법 소개

"지금 사랑하라"는 것이 현진 스님의 가르침이다. 책을 읽다 보면, 여러 대목에서 인간관계에서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날씨도 비 오는 날과 맑은 날이 번갈아 오듯이,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역시 그 사람의 삶이겠거니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소한 문제로 다툴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백 년 뒤에는 모두 사라질 인생. 남을 용서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서로를 편안하게 하는 길이다. 잡고, 붙들고, 복수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그 자체가 독을 품고 사는 삶이다. 살다 보면 내가 복수해 주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복수해 주는 경우가 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인과의 율동이다. 그러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내 곁의 사람들을 지금 사랑하라.

이 책은 4부 구성인데, 각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을 맞이하는 풍경을 담고 있다. 이러한 스님의 사계를 따라 글을 읽다 보면, 마치 철마다 꽃과 나무가 피고 지는 광경을 보는 듯하다. 우리는 세상사에 치여 봄이 와도 봄이 오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 스님은 "백 마디 말보다 자연의 풍광들이 말없이 우리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며, 우리를 자연의 자리로 초대한다. 그 외에도 〈좋은 봄날에 울지 마라〉에는 비교하지 않는 삶에서 오는 행복, 타인을 미소로 대하는 태도 등 마음을 따스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빼곡히 실려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현진 스님은?

월간 〈해인〉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간결하고 담백한 문체로 절집의 소소한 일상과 불교의 지혜를 독자에게 꾸준히 전달해 왔다. 현재 충북 청주 근교에 마야사를 창건하여 꽃과 텃밭을 가꾸며 지낸다. 펴낸 책으로는 〈산 아래 작은 암자에는 작은 스님이 산다〉 〈삭발하는 날〉 〈잼있는 스님 이야기〉 〈산문, 치인리 십번지〉 〈두 번째 출가〉 〈오늘이 전부다〉 〈삶은 어차피 불편한 것이다〉 〈언젠가는 지나간다〉 〈번뇌를 껴안아라〉 등 총 15종이 있다.

책속의 밑줄 긋기

▲저녁나절에 깨알같이 고개를 내밀고 있는 풀을 매는 작업을 하다가 그 속에 여린 백일홍이 여러 개 자라고 있어서 반가웠다.

옆집 에서 씨앗이 날아 왔을까…. 모종삽으로 떠 와서 화단 주변에 심었다. 이 꽃을 어디서 옮겨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이것이 오늘,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행복이다.

▲이웃들에게 자주 전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사는 일이 명예를 높이고 돈 버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꽃을 보고 구름을 만나고 흙을 만지는 일도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다. 인생의 관심 전부가 오직 돈 모으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지닌 아름다움을 닫고 사는 삶일 것이다. 이 햇살 좋은 날, 꽃들이 전하는 법문에 귀 기울이면서 삶을 위로받기를.

▲겨울 숲은 이런 자세로 이 추위를 견디고 있으므로 우리들도 약간의 고난이나 시련쯤은 견뎌야 할 것이다. 인간이 괴로운 것은 기회주의자들처럼 욕심을 부리니까 힘든 것인지도 모른다. 저 나무들처럼 제자리를 의연히 지키면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역경을 받아들이는 아량을 지녀야 한다.

일타 스님 명쾌한 보살계 법문 해설서

범망경보살계

일타 큰 스님 지음 | 효림 펴냄 | 1만 5천원



일타 스님은 1992년에 5책으로 된 〈범망경보살계〉를 발간했다. 그러나 이 책은 2000년대 초에 절판되었다. 원고 총 6,000매라는 방대한 분량을 다섯 권으로 발간한 데다가, 그 책의 내용이 너무 깊고 상세해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자연 도태된 것이다. 그러나 평생 계율을 연구하고 보살계를 설한 일타 큰스님 특유의 해설이나 그 핵심 내용마저 단절시킬 수는 없었다. 그래서 월간 〈법공양〉서는 핵심 내용을 가려 뽑아, 2008년 11월호부터 2012년 12월호까지 50회에 걸쳐 연재했고, 그 글들을 모아 다시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내놓게 됐다. 일타 스님의 명쾌하고 깊이 있는 보살계 법문은 불자라면 누구나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새기며, 읽고 또 읽으며 간직해야 할 책이다.

보살계 속에는 불자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법이 낱낱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10중계와 48경계로 이뤄진 보살계 속에는 대승불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 책은 〈범망경에 대한 기초 지식〉과 대승불교의 보살이 지켜야 할 무거운 계율인 '10중대계', 가벼운 계율인 '48경계'로 나눠져 있으며, 계율 하나 하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올바른 불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 책서는 범망경에 대한 제목 풀이, 범망경을 최초로 번역한 역경승 구마라집의 전기와 해설서들을 소개하고 있어 범망경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제 1장 〈십중대계〉서는 제 1중계인 '살계:살생하지 말라' 서부터 제 10중계인 '방삼보계: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까지 차례대로 설명한다.

제 1 '살계' 서는 살계를 제일 앞에 둔 까닭, 살생업의 과보, 자비심과 효순심에 대해 강조한다. 제 2 '도계' 서는 투도 업의 과보와 함께 복덕을 지으며 살 것을, 제 3 '음계' 서는 음란하지 말 것과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깨우쳐 준다. 제 4 '망어계' 서는 망어의 여러 가지 유형과 과보, 살리고 깨우치는 망어계에 대해 설하며, 제 5 '고주계' 서는 술을 팔지 말고 지혜롭게 살 것을, 제 6 '설사중과계' 서는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교화할 것을, 제 7 '자찬훼타계' 서는 스스로를 칭찬 말고 하심할 것과 칭찬도 비방도 마음에 두지 말 것을 설한다. 제 8 '간석가훼계' 에서는 나의 것을 아끼지 말고 줄 수 있는 것은 주라는 가르침을, 제 9 '진심불수회계' 서는 성을 내어 참회를 물리치지 말 것을, 제 10 '방삼보계' 서는 삼보를 비방하지 말고 믿음과 정법에 입각한 수행을 할 것을 각성시켜 준다.

제 2장 〈사십팔경계〉 속에는, 우리 불가서 고기와 오신채를 먹지 못하게 하는 까닭(제3경계, 제4경계)과 함께 병든 이를 간호할 것(제9경계), 중생을 방생하고 구제해야 하는 까닭(제20경계), 원을 세우고 맹세하는 법(제35경계, 제36경계), 복과 지혜를 닦는 법(제39경계), 악인에게 계를 설하지 말 것(제42경계), 경전에 공양하는 법(불공양경전계), 중생을 교화하는 법(제45경계), 설법하는 법(제46경계) 등 불자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한다. 책의 끝으로는 10중대계와 48경계의 '유통분'에 해당하는 경문이 실려 있는데, 이 경문까지 모두 읽고 나면, 어둔 밤에 밝은 등불을 만난 것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 것과 같고, 병든 이가 쾌차함을 얻음과 같은 환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초기불교 경전 통해 본 붓다의 삶

붓다의 삶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나카무라 하지메, 타나베 쇼우지 지음 | 이미령 옮김

솔바람 펴냄 | 1만 5천원



이 책은 부처님 말씀과 행적을 그대로 담은 초기불교 경전들을 통해 본 붓다의 삶과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부처님 당시의 시대상과 재가신도 모습들, 붓다의 출가서 입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으로 보여준 수행자로서의 인간 붓다를 만날 수 있다. 저자인 나카무라 하지메는 책 서문서 "2500년 전 인도서는 새로운 도시형 사회가 열렸고,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는 보편적인 인간 관계와 그에 수반되는 새로운 윤리사상이 요구됐다"며 "극도로 혼미한 시절에 붓다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집착을 떠나고 깨달음을 얻는 길로서 보살의 길을 설해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 지녀야 할 마음 가짐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자의 말처럼 이 책서 붓다는 어지러운 정세의 인도사회 현실속에서 집착을 떠나 깨달음을 얻는 길로 청정행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관념이나 형이상학으로서 깨달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현실서 괴로움을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함께 행복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임을 설한다. **김주일 기자**

